

TaKaRa Shuzo Co., Ltd. 바이오 사업 본부장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

조선일보 2000년 11월 22일자를 통해 당사 대표이사이며 TaKaRa Shuzo Co., Ltd. 부사장 겸 바이오 사업부분 본부장인 가토 이쿠노신의 한국의 생명공학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다.

가토 이쿠노신 사장 “치료용 유전자 조작은 필요”

일본 최대 생명공학 업체인 드래곤 제노믹스의 가토 이쿠노신(64) 사장(TaKaRa Shuzo Co., Ltd. 부사장, 바이오사업본부장)이 최근 방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가토 사장은 한국의 바이오 산업의 수준을 묻는 물음에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정부의 헛갈리는 지원 정책 때문에 혼돈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은 민간 기업체나 연구소들이 바이오 산업의 갈 길을 먼저 제시하면, 정부는 이를 최대한 돕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에서는 바이오 산업 거품 논쟁이 일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
일본에서는 영세한 생명공학 업체가 거의 없다.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생명공학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기술력이 있는 소규모 업체가 투자를 받아 대형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일본 생명공학 업계에는 거품은 거의 없다.
- 일본 정부의 바이오 산업 지원책은 실효가 있나?
일본에는 바이오 정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생명공학 업체들이 연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 제도적 차원의 지원만 할 뿐이다.
- 정부의 지원없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나?
기업이 죽고 사는 것은 다 저하기 나름이다. 세계 바이오 산업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만 기다려서는 안된다.
- 한국의 바이오기술 수준은?
한국의 바이오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다. 특히 유전자 치료 기술은 세계적이다. 이미 바이로메드, (주)한국유전자검사센터, 보한바이오메디칼(주) 등에 투자했으며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전념하지 않고 코스닥 시장만 기웃거리다면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얼굴 성형 등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문제라면 불가피하다고 본다.
- 바이오 산업의 전망은?
앞으로 바이오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미 바이오 산업이 그런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한국·중국·일본의 바이오 기술을 공동으로 묶는 작업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미국 주도의 게놈 연구와는 달리, 동양인 유전자 연구 등 특정한 분야의 게놈 프로젝트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11월 22일 조선일보]

TaKaRa 기술연구소 및 본사 연구

당사 전 직원은 2000년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2001년 시무식을 겸하여 2001년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TaKaRa 바이오 사업본부와 연구실을 견학하고 2001년 사업계획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본사의 여러 기초 연구 실험실과 장비 제조실, DNA Chip 제조 및 해석 서비스 부서, 시약보관 및 운송 등의 물류실 등을 돌아 보았으며 특히 본사 연구실 3층에 자리잡고 있는 Dragon Genomics 사업 관련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슈퍼 컴퓨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교토 시가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본사 연구소는 식품, 주류, 주정을 중심으로한 쿠사츠 제1중앙연구소와 바이오 메디칼 부분을 중심으로 세타 제 2연구소로 되어 있다.

특히 전직원이 본사를 방문하여 본사의 시스템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고 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의논하는 것은 향후 업무의 진행에 매우 유익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TaKaRa 전담직원교육 실시

당사는 2월 19일~23일 5일간 40시간의 교육일정으로 각 지역전문대리점 TaKaRa 전담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해 8월 전국지역전문대리점 체제를 새로이 구축한 후,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 올해! TaKaRa 제품 가이드라인과 선택가이드, 연구지원서비스, 다양한 신제품 및 주력상품 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지역 전문대리점에 1명 이상의 TaKaRa 전담직원을 두어 TaKaRa제품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전문 인력을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는 앞으로 정기적인 TaKaRa 전담직원교육 실시로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지역전문대리점을 통하여 항상 고객의 연구 파트너가 될 것이다.

신입사원 채용

당사는 2001년도 사업계획과 늘어난 신규업무의 소화 및 보다 나은 고객지원을 위하여 기술지원팀 및 바이오식품팀에 각 1명씩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

당사에 지원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외형의 확장보다 더욱더 내실있는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로메드, 유전자 전달체 美,英에 첫 특허등록

당사의 가족회사인 (주)바이로메드가 개발한 유전자 치료의 핵심 기술이 국내는 물론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등록을 받았다.

김선영 바이로메드(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사장은 최근 유전자 치료에 핵심이 되는 유전자 전달체인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에 대해 영국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사정이 끝나 통과됐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의 새로운 분야인 유전자 치료를 위해선 치료 유전자와 이 유전자를 전달하는 유전자전달체(벡터) 개발이 필수인데 김 교수가 개발한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한 전달체(Retrovirus Vector pDON-AI DNA, TaKaRa code 3650)가 지난 1999년엔 국내에서, 이번엔 영국과 미국에 등록을 받은 것이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개발된 유전자전달체가 생명공학의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특허 등록을 받은 것은 처음이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우리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설명하였다."

현재 유전자 전달체는 바이러스성 벡터(75%)와 유전자(혹은 화학물질인 전기자극 등과 혼합, 25%) 등 2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전자는 지놈 구조가 간단해 조작이 용이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명난 레트로바이러스(전체 45%)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김 교수가 지난 94년 부터 개발에 착수한 레트로바이러스도 이와 같은 계열로 미국에서 개발됐지만 복제 가능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1~2세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3세대이며 복제 가능성을 거의 제거하고 유전자 생산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 교수는 이 벡터를 이용해 헌터증후군, 고서병, 혈리증후군, 모르키오등 여러 유전질환은 물론 항암제,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미국과 중국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구를 계속해 이미 업그레이드된 4~5세대 벡터 개발을 완료해 후속으로 특허 2개를 10여개국에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라고 말하고 "모든 연구결과는 바이로메드를 통해 제품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바이로메드는 TaKaRa Shuzo Co. Ltd의 바이오사업부문이 2000년 2월 28일 600만불(한화 약 66억 3천만원)에 주식의 50%를 인수하여 당사의 가족회사로 업무협조 해오고 있다.

수식 합성 DNA 업무 개시

당사는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기존의 Primer제작을 담당하던 (주)아트만 바이오사이언스와의 협의를 거쳐 2001년 상반기중에 수식합성 DNA수탁업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다. 이로써 기존의 Primer제작, 합성 Peptide제작, 수식합성 DNA 등 명실공히 연구지원사업의 국내공급 체계완성이라는 큰 숙제의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광주과기원 보한바이오메디칼(주) 우수 졸업생상 시상

당사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한 생명과학자의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광주과기원 생명과학과 우수 졸업생상을 선정 시상하였다. 금년은 박성호(지도교수:엄수현) 졸업생이 선정되어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였다.

생명과학 관련학회 연간 후원협약 체결

당사는 관련학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생명과학 관련학회와 연간 후원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을 맺은 학회는 한국 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생화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미생물학회로 5개 학회이다.

한국 분자·세포생물학회 겨울모임 후원

지난 2월 8~9일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한국 분자·세포생물학회 겨울모임을 공식후원하였다.

Bio21 인터넷 쇼핑을 마일리지 이벤트 성황리에 마쳐

2001년 상반기 마일리지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Sony 6 head VTR, 브라운 커피메이커, LG 미니카세트,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등 우수 이용고객이 신청한 마일리지 사은품을 2월 10일까지 발송하였다. 다음 행사는 7월에 있을 예정이다.

